

【연구논문】

# 『미국 전복의 음모』: 남성적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편한 동거\*

권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 1.

모두의 예상을 깨고 2016년 11월 8일 기어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의 이른바 ‘트럼프 열풍’은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현 주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우려를 불러왔다. 트럼프 열풍이 일부 미국인들에게는 우연한 인기몰이 혹은 반(反) 클린턴 정서의 반사작용이라면, 또 다른 미국인들에게 이는 일회적 사건을 넘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실제로, 반이민자/반여성/반외국인 정서를 내세운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은 국제적으로는 경제적 위기감을 바탕으로 극도로 우경화되는 전지구적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올바름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백인 중하층 남성들의 말초적 불만이 표출된 기회이기도 하였다.<sup>1)</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민주주

---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국제적 우경화의 연장으로서의 트럼프 현상은 Mounk 참조. 경제위기와 트럼프간의 연결고리는 Theroux, 엘리트주의 및 다문화/이민에 대한 반감의 정서 분석은 Bucktin 각각 참조.

의는 위기에 봉착했으며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Rothermel)는 한 신문기사의 자기성찰이 대변하듯 트럼프 현상은 단순한 변칙적 현상이라고 보다는 미국사회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반민주주의적 요소들이 트럼프라는 통로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결과라 결론지을 수 있다.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미국적 자긍심의 표피 아래에는 반민주주의적 욕망이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는 상태로 도사리고 있다는 위기 의식은 필립 로스(Philip Roth)의 『미국 전복의 음모』(*The Plot against America*, 2004)를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이다. 비행사로 잘 알려진 찰스 린드버그(Charles Lindbergh)가 1940년 미국대선에서 루즈벨트(F.D. Roosevelt)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대안역사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 소설은 루즈벨트의 실용주의적 미국사회로부터 린드버그의 백인 우월주의 사회로의 전이가 얼마나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언한다. 미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로스의 비판은 크게 두 층위로 이루어진다. 우선, 『미국 전복의 음모』는 대안역사의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유대인의 강제이주를 골자로 한 “홈스테드 42(Homestead 42)” 법이나 반유대인 폭동 혹은 린칭같은 작품 속의 인종차별 사건들은 미국원주민 및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이주 사건 혹은 짐 크로우 법(Jim Crow) 하의 합법적 린칭 등 실제 미국역사의 치부를 암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처럼 반민주주의적인 역사가 이미 국가 정체성의 지울수 없는 부분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전복의 음모』는 미국성(Americanness)을 지탱하는 민주주의적 요소들 - 예를 들어 독립선언서와 미국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나 표현의 자유, 성/인종/국가적 소수를 위한 평등권 등 - 이 현실정치에서는 그 본질적 의미를 결여한 공허한 수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성 혹은 민주주의의 개념은 루즈벨트와 린드버그 혹은 유대인인 주인공 가족과 그에 맞서는 KKK 단원들 모두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나 정반대의 정치적 효과를 위해) 전유하는 대상으로 그려지며, 그 결과

작품이 그려내는 미국적 가치는 누구든 원하는 방식대로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비어버린 기표’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급진적인 정치적 문제의식의 이면에는 보수적이 고도 남성중심적인 관점으로 회귀하려는 다분히 역설적인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작품이 그려내는 국가정체성의 위기는 변질된 미국성에 기인하며 따라서 린드버그같은 일시적 일탈이 제거되더라도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 전복의 음모』는 전방위적인 정치적 파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강한 남근적(phallic) 아버지의 회복을 제시한다. 300여 쪽이 넘는 분량에 걸쳐 주인공 화자인 9세의 필립 로스는 끊임없이 남성적 롤모델을 찾으려 시도하며, 이는 형 샌디(Sandy)에서 출발해 세계대전에 참전해 다리를 잃은 사촌형 앨빈(Alvin)을 거쳐 결국 다친 몸을 이끌고 가족을 보호하는 아버지로 최종 귀결된다. 한편으로 볼 때, 이러한 ‘제대로 된’ 아버지 상(像)의 추구는 민주주의 체계라는 공적 영역이 붕괴된 상황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개인의 능력과 힘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미국 전복의 음모』에 나타난 남성성의 재확립은 앞 문단에서 언급한 사회비판 의식과 충돌하거나 심지어 이를 해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공동체를 통합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특정 개인에 대한 선망은 국가 정체성을 개개인의 자질 문제 대신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려는 관점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미국사회에 내재된 반민주주의성에 대한 자성’이라는 작품의 급진적 힘은 ‘강인하고 올바른 남성 리더에의 갈망’이라는 온건보수적인 관점으로 상당부분 대체된다. 이에, 본 글은 우선 『미국 전복의 음모』가 그려내는 미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논한 후, 이 시선이 남성적 힘의 회복이라는 정형화된 영웅담론 속으로 재포섭되는 과정을 자세히 추적할 것이다.

## 2.

1990년대 이래로 미국문학 비평에서 역사적 메타픽션(historiographic metafiction)<sup>2)</sup>이 가지는 문학적 가치는 너무도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린다 허천(Linda Hutcheon)을 필두로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와 패트리샤 워(Patricia Waugh),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역사가 및 비평가들은 역사적 메타픽션이 제공하는 새로운 역사읽기의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허천에 따르면, 역사적 메타픽션의 가치는 “진실이라는 것이 하나(Truth)가 아니라 언제나 복수(truths)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놓여있다(209).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이미 완결된 형태의 “하나의 진실”이라면, 역사적 메타픽션은 허구를 통해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함으로써 그동안 묻혀있거나 침묵해 온 관점들을 전경화하려 시도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역사 다시쓰기’의 중심에는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냉전논리나 2차 대전, JFK 암살 등 미국사회의 본질적 방향을 결정지은 주요 사건들을 선택해 재해석함으로써, 다수의 역사적 메타픽션들은 단순히 사건 자체의 진실보다는 그러한 사건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미국사회의 전반적 위기상황으로 눈을 돌리며, 이를 통

---

2) 본문에서 밝혔듯, 역사적 메타픽션의 종류나 작품, 혹은 그것의 정치, 문학적 가치에 대한 이론은 지난 20여 년간 너무도 많이 논의되어 온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고 주석 처리한다. 위에 따르면, 역사적 메타픽션의 정의는 “[소설이라는] 인공적 산물로서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의식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공론화하며, 이는 현실과 허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는 목적을 가진다”(2). 수많은 역사적 메타픽션 중에서도 특히 본 글의 주제인 ‘미국 국가정체성의 비판’ 문제와 직결된 대표적인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에 패배했다는 상상에서 출발한 딕(Philip K. Dick)의 『높은 성의 사내』(*The Man in the High Castle*, 1963), 냉전시절 소련의 스파이로 몰려 사형당한 로젠버그의 재판을 다룬 닥터로우(E. L. Doctorow)의 『다니엘의 서』(*The Book of Daniel*, 1971)와 쿠버(Robert Coover)의 『공개 화형』(*Public Burning*, 1977), JFK 암살을 재구성한 드릴로(Don DeLillo)의 『리브라』(*Libra*, 1988)와 메일러(Norman Mailer)의 『오스왈드 이야기』(*Oswald's Tale*, 1995).

해 현실의 미국이 국가의 근본이념과 괴리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비판한다.

역사적 메타픽션의 의의가 대안적 과거를 통해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공론화하려는 시도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미국 전복의 음모』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작품에 나타난 대안역사의 측면을 우선 살펴보자면, 이 작품은 린드버그가 루즈벨트의 3선을 저지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1940년 10월부터 비행중 행방불명되고 루즈벨트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는 1942년 10월까지 약 2년간의 시간을 다룬다. 실제로 백인 우월주의자이자 나치 정권의 훈장을 수여한 전력이 있던 린드버그가 가상의 대통령이 되고 친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역사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독일과의 동맹을 맹세한 “아이슬란드 협약(The Iceland Understanding)”<sup>(55)</sup>을 기점으로 유대인 이주정책을 의미하는 “홈스테드 42”<sup>(204)</sup> 법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소수민족을 ‘제대로 된 진짜’ 미국인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미국 흡수 정책(American Absorption)”<sup>(84)</sup>에 이르기까지, 린드버그 치하의 미국은 국가구성원의 일부를 내부의 적으로 돌림으로써 국가적 단결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파시즘적 사회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역사적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복의 음모』가 그려내는 린드버그의 독재사회는 루즈벨트 치하의 실제 1940년대 미국사회와 불편할 정도로 닮은 모습을 드러낸다. 가상과 현실간의 유비관계는 소수인종에 대한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 분명해진다. 유대인 공동체의 결집력을 해체하고 이들의 “미국성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린드버그 정부는 1942년 로스 가족을 포함한 다수의 유대인 가족들을 중서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내용의 “홈스테드 42” 법령을 발표한다<sup>(205)</sup>. 이미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가상의 법령은 인디언 강제 이주를 목적으로 1862년 링컨 정부가 시행한 “홈스테드 령(the Homestead Act)”<sup>3)</sup>을 패러디한 정책이다. “홈스

3) 링컨 정부가 1862년 발표한 “홈스테드 령”은 서부로 이주하는 백인들에게 땅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무법천지인 서부를 정부의 규제 하에 두고 서부개척에

레드 42”가 이름과 내용 면에서 링컨의 흠스테드 령을 환기시킨다면, 1942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소수인종에 대한 미국정부의 또 다른 강제 이주 정책을 떠올리게 만든다. 일본의 진주만 폭격과 뒤이은 미국의 2차 대전 참전과 맞물려, 루즈벨트 정부는 1942년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로 수용소에 격리하는 “대통령령 9066호(Executive Order 9066)”를 공포한 바 있다.<sup>4)</sup> 백인이자 진짜 미국인인 ‘우리’와 영원한 소수 이방인인 ‘그들’ 간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댄다는 점, 그리고 이 이분법에 기반한 불평등과 차별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링컨의 흠스테드 령과 루즈벨트의 대통령령, 그리고 린드버그의 흠스테드 42는 외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수에 대한 국가적 폭력의 역사라는 본질적인 공통분모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린드버그의 독재사회와 실제 미국사회 간의 또 다른 교차점은 짐 크로우 체제에서도 드러난다. 잘 알려져 있듯, 많은 미국인들에게 루즈벨트 시대는 유럽과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자부심과 양차대전 참전을 통한 미국 국가위상의 수직상승, 그리고 뉴딜정책으로 대변되는 실용주의의 변성을 상징한다. 『미국 전복의 음모』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다. 작품 초반부에서 어린 필립은 진보주의자이자 미국이상의 절대적

---

박차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한편으로 이 법령은 가난한 백인 이민자들에게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들을 미국사회로 안전하게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그 땅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으로써 소수인종에 대한 국가적 억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 4) 실제로 수용소로 보내진 일본계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었으며, 일본계라는 혈통 이외에는 일본 본국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1945년 종전 이후까지 수용소에 갇혀 있었으며, 강제 이주로 인해 발생된 재산 손실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보상받지 못한 상태이다. 박진빈에 따르면,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이주 및 수용은 “미국 시민의 인권과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였다는 점, 통보부터 이송까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최악의 상황에서 강제 이주를 시켰다는 점, 그리고 수용소들이 모두 척박한 사막 지역에 세워졌다는 점 등 때문에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 할 만하다”(112).

신봉자인 아버지를 따라 린드버그를 미국의 공적이라 생각하고 루즈벨트를 미국정신의 화신으로 여긴다. 후자는 전자의 “[인종차별적] 억압에 맞선 보루”이자 “미국헌법” 및 “권리장전”과 동급의 힘을 가지며(18), “우리 가족에게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우리의 삶을 그의 삶, 더 나아가 미국 전체의 삶과 자동적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28)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루즈벨트의 미국은 짐 크로우라는 시스템적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보장되던 시대이기도 했으며, 따라서 이민자/유색인종이 동등한 미국인으로서 국가와 합체된 하나의 “역사”를 이룬다는 필립의 순진한 믿음은 작품 곳곳에서 배반된다. 경연대회에서 흑인아이를 그린 형의 그림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심사에서 배제되거나(23) 로스 가족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호텔에서 쫓겨난 후 향한 또다른 싸구려 호텔의 흑인 하인은 심지어 유대인보다도 더 낮은 취급을 받고(72) 시골 농장의 흑인들은 미국사회에서 가장 싸고 불안정한 노동계층을 형성한다(99). 이처럼 짐 크로우의 인종질서로 인해 사회의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 마치 유명처럼 존재하는 유색인종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전복의 음모』는 린드버그 이전의 현실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적 이상과는 거리가 먼 사회였음을 (혹은 좀더 거칠게 말하자면 린드버그의 독재사회와 현실의 미국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독자에게 상기시킨다.

하지만 『미국 전복의 음모』가 비판하는 반민주주의적인 특성은 단순히 강제 이주나 짐 크로우처럼 상부권력의 총위에서 결정되는 정책적 한계만은 아니다.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오히려 미국사회와 대중이 반민주주의적 정서, 특히 그 중에서도 반유대주의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점이다. 유대인의 “열등한 피가 침투해” “우리 유럽 혈통의 유산”을 위협한다는 전형적인 백인 우월주의 논리(14)부터 2차 대전이 유대인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므로 “미국을 유대인의 전쟁으로부터 지켜야 한다”(177)는 주장까지, 린드버그가 내세운 다양한 반유대인 수사는 백인 미국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다. “11월의 [대통령] 선거

는 심지어 박빙조차도 되지 못했다. 린드버그는 전체 표의 57%와 46개 주의 선거인단 표를 독식했다”(52). 작가가 바라보는 미국의 문제점이 린드버그보다는 그의 사상에 공명하는 사회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전국적인 반유대인 폭동과도 연결된다. 린드버그의 인종차별을 비판하며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유대계 언론인 월터 윈첼(Walter Winchell)이 암살되면서 촉발된 미국 버전의 “수정의 밤(Kristallnacht)”(266)은 디트로이트에서 시작해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루이빌 등을 거쳐 미국 동북부까지 들불처럼 번져, 결국 “나치 독일을 제외하고 20세기에 발생한 최악의 반유대인 폭동”으로 확장된다(272). 이러한 미국판 수정의 밤이 본격화된 시점이 린드버그 치하가 아닌 그의 행방불명 이후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이상은 존재하며 따라서 린드버그라는 위협요소가 제거된 후 사회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반유대인 정서와 인종차별적 폭력 등 린드버그의 정신적 유산은 그의 사후에 오히려 더욱 강력해져 미국을 “영원한 두려움”(1, 328)의 장소로 고착시킨다.<sup>5)</sup>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근간으로 여기는 미국인들이 이토록 반민주주의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역설적 상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담으로 『미국 전복의 음모』는 정치의 스펙터클과 그로 인한 대중의 우민화, 그리고 비어있는 기표로서의 미국성의 문제를 각각 제시한다. 전자를 우선 살펴보자면, 린드버그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가질 법한 비전이나 국정철학을 결여한 인물로, 이를 메꾸기 위해 그는 유명한 비행사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지지를 호소한다.

5) “영원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 마치 『미국 전복의 음모』 전체를 감싸는 괄호와도 같이 - 작품의 첫 줄과 작품의 최종 장의 제목에 각각 등장한다. 작품의 이러한 구조는 “영원한 두려움”과 그것이 상징하는 미국의 반민주주의적인 정체성이 이미 린드버그 등장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그의 퇴장 이후에도 계속될 문제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긴 부츠와 바지, 가벼운 점퍼를 갖춘 비행복은 그가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을 당시와 동일한 옷차림이었으며, 연설 중에도 그는 가죽 모자나 비행 고글을 벗지 않은 채 이마 위로 밀어두었다. [...] 그게 [연설의] 전부였다 - 아우구스투스의 A까지 세어도 겨우 41 단어였다. LA 공항에서 샤워와 간식, 한 시간의 낮잠 후 그는 ‘세인트루이스의 정신’[대서양 횡단 경비행기]에 다시 올라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저녁쯤 그는 새크라멘토에 도달했다. 그날 그가 방문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사람들은 주식폭락이나 대공황이 마치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으며, 그가 참전을 반대하는 전쟁 문제 역시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30)

His flight outfit of high boots and jodhpurs and a lightweight jumper was a replica of the one in which he'd crossed the Atlantic, and he spoke without removing his leather headgear or flight goggles, which were pushed up onto his forehead. ... That was the whole of it - forty-one words, if you included the A for Augustus. After a shower and a snack and an hour's nap there at the L.A. airport, the candidate climbed back into the *Spirit of St. Louis* and flew San Francisco. By nightfall he was in Sacramento. And wherever he landed in California that day, it was as though the country hadn't known the stock market crash and the miseries of the Depression, as though even the war he was there to prevent us from entering hadn't so much as crossed anyone's mind.

“41단어”에 불과한 연설문과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 비행복” 간의 극명한 대조가 보여주듯, 린드버그는 토론이나 연설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방식 대신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고유의 ‘거친 개인주의’와 이것이 함의하는 프런티어(이 경우는 서부가 아니라 하늘) 개척정신이라는 강력한 국가적 신화를 스펙터클로서 대중의 눈앞에 전시한다. 물화된 이미지의 소비행위가 경제/문화적 영역을 넘어 정치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그 속에서 이미지가 언어의 역할을 대신함에 따라, 대중은 설득이나 공약, 정치적 비전을 논하는 대신 정치인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이를 그의 정치적 역량으로 오독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대중에

게 있어 “주식폭락이나 대공황,” “전쟁”과 같은 국가적 문제들은 마치 마법같이 해결될 것처럼(혹은 눈앞의 강한 지도자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처럼) 여겨지며,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치개입을 전제로 하는 시민사회는 이미지에 의해 호도될 여지가 다분한 군중사회로 전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 전복의 음모』가 그려내는 미국은 국가의 전통적 기반인 합의적 민주주의가 스펙터클의 정치에 의해 대체된 공간에 가깝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합의적 민주주의가 의견수렴의 장으로서의 공적 영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면, 린드버그가 상징하는 소위 ‘스펙터클 민주주의’는 상호소통과 이성적 합의의 역할이 축소된 자리를 이미지의 소비행위가 대신하는 상황을 보여준다.<sup>6)</sup>

『미국 전복의 음모』가 제시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한편으로 정치의 스펙터클화로 인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쇠락에서 비롯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정체성의 근간인 미국성이 꺾이기만 남은 ‘비어버린 기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이 지적하듯, 현대 미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의미와 실천을 잃은 공동(vacuity)이자 비어있는 기표로 여기에는 모든 이들이 마음대로 자신들

6) 정치의 스펙터클화와 그에 따른 대중의 이미지의 수용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에 들어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 엘리트적 이미지를 심분 활용한 트럼프 외에도, 사냥과 총을 통해 강한 마초 이미지를 부각하는 러시아의 푸틴이나 최근 스페인 좌파정당의 새로운 섯별로 떠오른 이글레시아스 모두 정치의 이미지화라는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후자의 말을 빌자면, “진짜 정치는 TV와 신문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국회보다 훨씬 중요하다”(이글레시아스와 이미지로서의 현대정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Kaminski 참조). 정치의 스펙터클화와 동시대 현실 정치간의 유비관계는 『미국 전복의 음모』와 부쉬 정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보여진다. 카플란(Brett Kaplan)에 따르면,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린드버그의 정치전략은 “대중을 향한 쇼(stunt)인 동시에, 이는 2003년 이라크 침공후 아브라함 링컨[항공모함]에서 부쉬가 행한 ‘미션 완수(mission accomplished)’ 연설의 판박이이기도 하다”(117). 비록 카플란처럼 부쉬 정부와 이미지 전략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웨버(Myles Weber)나 세이퍼(Elaine Safer), 쿠쉬(J.M. Coetzee) 등 다수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그려내는 린드버그의 제반 정책이나 이미지들이 부쉬 정부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있음을 지적한다.

의 꿈과 희망을 귀찮이킬 수 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는 하나의 “상표(brand)”가 되어버렸다(1). 『미국 전복의 음모』 역시 브라운과 정확히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작품이 그려내는 민주주의와 미국정신은 더 이상 구체적인 실천방식이나 합의된 보편성의 기준이 아니라 일종의 텅 빈 기표 혹은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범주에 가까운 것으로 제시된다. 민주주의가 정작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재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표만이 난무한 상황에서, 작품 속 인물들은 좌우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똑같이 민주주의를 호명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상대를 비난한다. 린드버그에게 있어 원철크를 포함한 반대 세력이 “[미국의] 민주주의적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241)이라면, 반대로 원철크에게는 린드버그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242). 유대인 공동체가 린드버그 정부를 “미국 전복의 음모”(260)로 부른다면, 반대로 린드버그 지지자들은 유대인들을 “미국 전복의 음모”(316)의 주체로 지목한다. 미국 흡수 정책이 아버지에게는 “미국이 대변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84)라면, 린드버그의 지지자인 벵겔스도르프 랍비(Rabbi Bengelsdorf)에게 이는 “미국의 이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34)에 다름 아니다.

비어버린 기표로서의 민주주의 혹은 미국정신이 누구든 원하는 대로 호출하거나 전유, 왜곡할 수 있는 수사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작가의 시선은 루즈벨트와 린드버그의 미망인인 앤 린드버그(Ann Morrow Lindbergh)가 각각 행한 연설에서도 반복된다. 린드버그가 나치 정부를 백악관에 초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루즈벨트는 선거 패배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 미국의 근본정신을 언급하고 지지를 호소한다. 앤 린드버그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남편의 죽음 후 대행권한을 행사하는 윌러(Wheeler) 부통령 체제를 비판하고 동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루즈벨트의] 연설은 너무도 흥분되고 극적이어서,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국가의 구원이 당장에라도 일어날 듯한 기쁨의 환상에 휩쓸렸다. [...] “오늘 전 세계는 노예제와 자유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자유에 봉헌된 미국만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미국 내에 반민주주의적인 세력에 의한 음모가 진행된다면 ... [그것은] 미국 권리장전이라는 핵심적인 기록이 지지하는 자유에 대한 거대한 열망을 억압하는 음모입니다. ... 미국인들은 국가선조들이 미국헌법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위해 구축해 둔 자유의 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78)

[His] words so stirring and dramatic that every human being in that crowd was swept away by the joyous illusion that the nation's redemption was at hand. [...] “Today the entire globe is divided between human slavery and human freedom. We choose freedom! We accept only an America consecrated to freedom! If there is a plot being hatched by anti-democratic forces here at home, ... a plot to suppress the great upsurge of human liberty of which the American Bill of Rights is the fundamental document. ... Americans will not surrender the guarantees of liberty framed for us by our forefathers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의도적으로 연설의 결론부분이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문서를 떠올리게 만들면서 [앤 린드버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나는 이 옹호할 수 없는 정부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지지하기를 거부하는 나의 행위를 미국인들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현 정부의 역사는 반복된 착취와 폭력의 역사였습니다 ... 따라서 1776년 7월 버지니아 출신 제퍼슨과 펜실베이니아의 프랭클린과 매사추세츠의 애덤스의 주장처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 이 폭력적인 착취의 역사가 끝나기를 선언합니다.” [이 연설을 통해] ‘영부인’은 ... 그녀의 신화적 힘을 앞세워 ... 국회와 비합법적인 윌러 정부를 빠르게 해체시켰다. (319)

Deliberately appropriating for her peroration echoes of American democracy's most revered text, she concludes, “I ask no more of the American people than that they follow my example and refuse to accept or support government conduct that is indefensible. The history of the present

administration is a history of repeated injuries and usurpations ... Consequently, in defense of those same inalienable rights claimed in July of 1776 by Jefferson of Virginia and Franklin of Pennsylvania and Adams of Massachusetts ... I declare that the injurious history of usurpation to be ended.” “Our Lady of the White House” ... marshaling the power of her mystique ... engineers the speedy dismantling of Congress and the courts of the unconstitutional Wheeler administration.

이 두 연설은 정치적으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리울 정도로 동일한 작동방식을 드러낸다. 이들은 모두 “권리장전”이나 “미국헌법” 혹은 독립선언문 등 미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반 기표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함으로써 대중을 설득하려 시도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표들이 단순히 비어있는 기표의 문제를 넘어 일종의 신화화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루즈벨트가 언급하는 “자유”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추상화된 수사로 반복 사용될 뿐이지만, 권리장전이나 미국헌법이 발화되는 순간 그것이 미국사회에서 가지는 이념적 절대성과 옳음은 대중에게 “국가적 구원과 ... 기쁨의 환상”을 자동적으로 환기시킨다. 민주주의(와 그 기표들)가 그 안에 내포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신화적 아우라를 통해 작동한다는 관점은 앤 린드버그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나 “정부의 착취”같은 독립선언문에 쓰인 표현을 그대로 끌어와 사용함으로써 그녀는 선언문이 상징하는 미국정신을 스스로에게 덧입히려 시도하며, 이처럼 미국정신의 아우라에 기대 얻어진 “신화적 힘”은 그녀의 정치적 속적인 윌러 정부의 몰락에 일조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미국 전복의 음모』가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현실의 미국사회를 비판하려는 목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작품에 나타난 반(反)소수인종 정부정책이나 스펙터클의

정치, 혹은 물화된 미국성의 기표들은 바로 여기 현실의 미국사회가 역사적으로 당면해왔거나 현재진행형인 문제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작가는 미국이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의 대변자였다는 자기만족을 대안역사라는 우산 아래 가감없이 비판한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혔듯, 『미국 전복의 음모』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정치적 급진성이 ‘강한 남성성의 회복’이라는 다분히 전통적인 개인적 구원의 서사로 대체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 역사와 사적 역사가 서로 교차하고 대립하는 작품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린드버그로 촉발된 국가적 정치지형의 변화가 『미국 전복의 음모』의 한 축을 이룬다면, 다른 한 축은 9살 소년인 필립 로스의 가족사를 다루는 이른바 반허구적 자서전(pseudo-autobiography)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볼 때, 개인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라는 이중적 층위로 구성된 작품구조는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개인도 역사의 진행방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증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로스 가족의 삶은 린드버그 치하의 인종차별적 정책에 의해 뿌리째 흔들린다. 미국 흡수 정책에 따라 형 샌디는 뉴왁(Newark)의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 중서부 백인 농장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린드버그 정부의 “명예로운 멤버”(112)로 다시 태어나고, 사촌형 앨빈은 미국의 친나치 정책에 반대해 캐나다 군에 입대했다가 다리를 잃은 후 가출하며, 흡스테드 42의 이주 명령을 거부한 아버지 허만 로스(Herman Roth)는 결국 실직하게 된다. “우리는 정상적인 나라에 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는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살지 못할 것이다”(108)라는 필립의 독백이 보여주듯, 국가라는 공적 영역의 역사는 사적 영역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이들의 운명을 좌우한다.

국가적 역사와 개인적 역사의 중첩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둘러싼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작품의 전반부는 국가 공동체의 상징적 아버지인 루즈벨트와 생물학적 아버지인 허먼이라는 두 아버지의 몰락이

반복적으로 교차 편집되는 구조를 취한다. 이들의 몰락은 자유민주주의의 쇠퇴와 맞물려 진행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루즈벨트가 패배함에 따라, 미국성에 대한 허먼의 절대적인 믿음 역시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링컨 기념관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게티스버그 연설을 강조하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 미국정신에 대한 공감이라 아니라 “얼굴을 한 대 갈겨주고 싶은 … 시끄러운 유대인”(65)이라는 차별적 욕설이며, “이 나라에는 아직 대법원이 있고 … 선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197)는 미국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 역시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다. 린드버그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랑하는 조카와 큰아들을 보호하지도 못할뿐더러 자신의 근본적인 가치관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 속에서, “보호자로서 아버지가 가지는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209).

가부장으로서 아버지가 겪는 무력감은 그의 울음에서 절정을 이룬다. “아버지가 우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 워싱턴의 카페에서 반유대주의 애송이들에게 반항적으로 노래를 부르던 아버지가 입을 벌린 채 큰 소리로 울고 있다. 마치 버려진 아기 혹은 고문당하는 남성처럼. 왜냐하면 아버지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막을 힘이 없었니까”(113). 국가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부터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자각과 그에 따른 열패감은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기”이자 “고문당하는” 남성처럼 수동적인 위치로 전락한 남성성을 상징한다. 이러한 거세된 남성/가부장으로서의 허먼의 입지는 심리적인 죽음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같은 건물에 사는 셀든(Seldon)의 아버지가 병으로 타계한 장면에서 필립은 들것에 실려 나오는 시체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환상에 이유 없이 사로잡힌다. “나는 저 천 아래 누워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살아 계신지 살아있는 척만 하는 건지 혹은 저 구급차 뒤편에 죽은 채로 실려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171-2). 아버지의 무너짐을 목도한 필

립의 입장에서 볼 때, 가부장적 권위와 남성성 모두를 상실한 아버지의 처지는 죽지는 않았으되 “살아있는 척만 하는” 상징적인 죽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적 아버지와 가부장적 아버지가 각각 국가 공동체와 가정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현실 앞에서, 필립은 크게 두 가지의 대응방식을 선택한다. 그 중 하나는 아버지 이외의 다른 남성 롤모델을 찾으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실제로, 필립의 서술을 전반적으로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징적 아버지 찾기’라 할 수 있다. 그가 원하는 정신적 지주는 작품 초반 아버지의 몰락을 거쳐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언제나 알고 있는”(94) 형으로 옮겨가고, 형에 대한 실망은 “아버지를 포함해 내가 아는 모든 남자중 가장 크게 빛나고 그의 열정적인 투쟁이 곧 내 투쟁이 되었던”(157) 앨빈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며, 결국에는 도박에 빠진 앨빈을 뒤로 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최종 귀환하는 구조를 취한다. 권위있는 남성 롤모델을 향한 필립의 열망이 (적어도 작품 중후반까지는) 반복적으로 배반 또는 유예되는 상황 속에서 필립은 ‘자발적 고아’라는 두 번째 선택지를 꺼내든다. 필립에게 있어 자발적으로 고아가 되고 싶은 욕망은 롤모델에 대한 그의 선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아버지, 형, 사촌형이 실패한 정신적 지주로서 차례로 실망을 안겨줄 때마다 그는 이들 부계의 혈통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단절됨으로써 무력감에서 벗어나려 시도한다. 셸든의 웃을 흠쳐 달아나는 아래의 장면은 가출 및 고아되기가 필립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잠옷을 벗고 셸든의 바지로 갈아입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그의 아버지의 유령을 떨쳐내고 앨빈의 빈 휠체어에 걸머지 않으려 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이 참사에 저항하겠다는 결심만이 나를 지배했다. ... 나는 역사와 전혀 얽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규모로 존재하는 소년이고 싶었다. 나는 고아이길 원했다. (232-3)



I stood in the dark bin removing my pajamas and stepping into Seldon's pants while at the same time mentally warding off the ghost of his father and trying not to be terrified by Alvin's empty wheelchair. I wasn't being swallowed up by anything other than the determination to resist a disaster our family and our friends could no longer elude and might not survive. ... I wanted nothing to do with history. I wanted to be a boy on the smallest scale possible. I wanted to be an orphan.

셀든의 옷을 훔쳐 입음으로써 필립은 셀든의 “아버지 없는 (fatherlessness)”(142) 상황을 스스로에게 덧입히려 시도하며, 이처럼 고아라는 정체성을 전유함으로써 그는 “[셀든의] 아버지의 유령”이나 “앨빈”과 같은 실패한 아버지들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아버지로부터의 도피 욕망은 곧 역사로부터의 도피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 아버지의 몰락이 국가 공동체의 집단적 역사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이라면, 아버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짓누르는 미국의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아버지(father)와의 단절을 미국 선조(Fathers)들과의 단절과 병치시킴으로써 필립은 미국의 정신적 파산이라는 역사의 진행방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을 실현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필립의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그친다. 몇 번의 가출 시도는 모두 하나같이 실패로 끝나며,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는 개인이 역사 바깥에 존재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반증한다. 앞 문단에 인용된 가출 시도는 필립이 말의 뒷발에 머리를 맞고 잠깐의 기억 상실중에 걸리는 것으로 끝난다. 윤수진이 정확히 지적하듯, 이 문학적 장치의 “역사를 부인하는 집단적인 망각”(221)에 대한 작가의 경고로 읽을 수 있다. 국가의 역사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은 역사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역사를 잊고 싶다는 욕망으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출을 통해 가족, 유대인, 미국이 각각 가지는 역사적 짐으로부터 해방되려는 필립의 시도는 기억의 망각이라는 위협에 그를 노

출시킨다. 가출의 또 다른 형태로 작품이 제시하는 기독교 백인(gentile) 미행 놀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버스에서 만난 백인을 무작위로 골라 집까지 따라가는 이 놀이는 유대인 혈통에서 벗어나 백인들의 일부가 되고 싶은 필립의 소망을 반영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의 역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환기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나는 버스에서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알아차린 사실은 ... [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유대인으로 보인다는 점이였다.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였다”(134).

이를 종합해 볼 때, 국가적 역사에 대한 개개인의 책임의식은 분명 『미국 전복의 음모』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아버지의 몰락으로 인한 아버지(들)의 연이은 몰락, 그리고 필립의 가출이 반증하는 혈통 단절의 불가능성은 모두 공통적으로 집단적 역사가 사적 세계를 추동하는 근원적 힘이며 따라서 전자로부터의 도피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의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미국 전복의 음모』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작품의 이러한 역사의식이 결말에 이르러 상당부분 약화되거나 심지어 무화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이는 『미국 전복의 음모』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보호자로서의 아버지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역사 속에 위치한 개인을 지표 삼아 국가적 정체성을 공론화하려는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과 반대로, 결말이 그려내는 아버지의 모습은 ‘공동체와의 단절을 통해 힘과 독립성을 획득한 개인’이라는 환상적인 해결책에 오히려 가깝다. 역사에서 비껴간 개인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은 폭력을 통한 남성성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작품 후반부에서 허먼은 가출했던 앨빈과의 말싸움 끝에 심각한 주먹다짐을 벌이게 된다.

아버지와 앨빈의 피가 튀는 광경은 놀라움 자체였다. 모조 오리엔탈 카펫의 사방에 피가 튀고, 커피 테이블의 부서진 잔해에서 피가 떨어지며, *아버지 이마에 마치 표식처럼 피가 번지고* 사촌 형의 코에서 피가

뿔어져 나왔다. ... [그들은] 이마에 난 뿔로 들이밀었다 뒤로 빠지는 사람들처럼 뼈가 부딪치는 끔찍한 한 방을 날렸으며, *신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환상 속의 키메라와 같은 생물이 우리집 거실에 들어와 거대하고 날카로운 뿔로 서로의 살점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었다. (295; 필자의 강조)

[J]ust the sight of my father's and Alvin's blood was stunning enough. Blood spattered the length and breath of our imitation Oriental rug, blood dripping from the splintered remains of our coffee table, blood smeared like a sign across my father's forehead, blood spurting from my cousin's nose. ... [They fight] with a terrible bony thwack colliding, rearing back and charging in like men with antlers branching from their brows, fantastical, cross-species creatures sprung from mythology into our living room and pulping each other's flesh with their massive, snaggletoothed horns.

남성성의 부활을 상징하는 문학적 장치는 이 장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의 “이마에 표식처럼 피가” 묻은 이미지는 소년이 성숙한 남자로 인정받는 원시부족의 통과의식을 떠올리게 만들며, 이 상징적 의식을 거친 아버지는 마치 “신화에서 튀어나온” 존재처럼 대부분의 남성중심사회에서 신화적 이념으로 작동하는 강하고 거친 남성성을 부여받는다. 강한 남성으로 거듭난 아버지의 존재감은 그를 가두고 있던 예전의 여성화된 상태를 부숨으로써 완성된다. 위 인용문에 나오는 부서진 커피 테이블은 평소 아내가 “펄 벽이나 패니 허스트나 에드나 퍼버”같은 동시대 여성작가들의 책을 읽고 보관하는 일종의 여성화된 장소로 묘사되며(296), 이 여성적 상징물을 파괴하고 자신의 피를 묻힘으로써 아버지는 앞서 눈물이나 심리적인 죽음과 같이 “남자다움을 거세당한 (unmanned)”(173) 이전의 상태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된다.

폭력을 통한 남성적 주체의 회복이라는 다분히 정형화된 이념적 장치는 아버지가 권총을 얻는 장면에서도 반복된다. 위층에 이사온 이탈리아

이민자 쿠쿠자(Cucuzza)는 반유대인 폭동이 뉴욕까지 번지자 아버지에게 호신용 총을 건네지만, 아버지는 미국의 합법적 시민인 자신과 가족을 국가가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믿음 하에 총기 소유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미국 민주주의 체계가 개인을 보호한다는 아버지의 믿음은 곧 증발한다. “아버지는 그동안 쪽 자신이 틀렸고 [이민을 주장한] 아내와 [미국을 버리고 캐나다로 이민간] 티셀웰 가족이 옳았음을 결국 인정했”으며, 국가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수치심”(301)을 느끼고 결국 쿠쿠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쿠쿠자 씨가 권총을 건넸을 때 이번에는 아버지가 받아들였다. 그의 몸은 사방에 멍들고 붕대로 싸매졌고 그의 입은 부러진 이빨들 투성이였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쿠쿠자 집의 창문없는 뒤쪽 복도에 앉아 온 집중력을 발휘해 손에 든 무기를 바라봤다. 마치 그것이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을 처음 안았을 때 이후로 자신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물건인 것처럼. (299)

This time when Mr. Cucuzza offered a pistol, my father accepted it. His body was black-and-blue and bandaged just about everywhere, his mouth was full of broken teeth, and still he sat with us on the floor in the Cucuzzas' windowless back foyer, regarding the weapon in his hands with all his concentration, as though it were no longer just a weapon but the most serious thing entrusted to him since he'd first been given his infant babies to hold.

아버지의 폭력과 그로 인한 상처는 남성적 보호자가 획득한 일종의 표식으로 제시된다. “멍들고 붕대로 싸매진” 상처입은 남성의 몸은 패배한 연약함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총이 상징하는 공격성이나 투쟁심과 결합하며, 여기에 더해 총이 마치 “자신의 아이들처럼 중요”하다는 묘사는 그 폭력성의 목적이 가부장으로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환기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거친 남성 주체가 재탄생하는 순간이 미국 역사와의 결별과 정확히 맞물린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 총을 소유하는 행위는 (적어도 이상주의자였던 아버지에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징하는 모든 민주주의적 이상에 종말을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 파산한 공적 역사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폭력적 남성 주체로 거듭남으로써 그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공동체적 구원 대신 가족의 보호라는 개인적 층위의 구원으로 시선을 돌린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한걸음 떨어져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남성의 이미지는 작품의 결말에서 절정을 이룬다. 어머니가 반유대인 폭동으로 살해된 후 켄터키에 홀로 남은 셀튼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는 다친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선다. 이 장면에서 그의 이미지는 서부 개척으로 대변되는 19세기의 거친 개인주의적 남성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재생산한다. 상처라는 훈장을 달고 “최전선의 군인”(355)처럼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360)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낮설고 이상해 보이는 유태인”(357) 개척자는 켄터키라는 “서부의 황야”(360)를 향해 떠난다. 그러나 소위 ‘낮설’ 땅을 ‘문명화’하는 공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띤 서부 개척과 달리, 아버지의 개척은 철저히 사적인 영역에 머무른다. 작품 초기의 모습과 정반대로 그는 길에서 만나는 폭도들의 반유대주의 사상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으며, 그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자유민주주의 혹은 미국정신은 이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대신 그의 유일한 목표는 로스 가족에게 아들이나 닮은 셀튼을 무사히 구하는 일에 집중된다.

[가는 길에] 아버지는 폐렴에 걸려 거의 돌아가실 뻔 했다. 그러나 셀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었다. 아버지는 구원자였고, 고아가 그의 전문분야였다. ... 누구도 어머니 없이 그리고 아버지 없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조각이나 나쁜 영향력에 빠지기 쉽다. 그런 사람은 뿌리가 없으며, 모든 것에 취약하다. (358)

[H]e very nearly died from pneumonia. But there was no way of stopping him until Seldon was saved. My father was a rescuer and orphans were his specialty. ... No one should be motherless and fatherless. Motherless and fatherless you are vulnerable to manipulation, to influences - you are rootless and you are vulnerable to everything.

작품의 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인용문은 『미국 전복의 음모』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셸든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나 “아버지 없이” 존재하는 이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묘사는 구성원을 자신의 힘으로 보호하는 강한 남성 리더라는 환상을 가감없이 표출하지만, 작품 후반부 들어 국가 공동체의 구원의 가능성이 서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이 ‘강한 남성 리더’가 구원하는 대상은 ‘나의 가족’이라는 개인적 영역<sup>7)</sup>으로 엄격히 한정되면서 작품은 끝을 맺게 된다.

### 3.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본 글은 『미국 전복의 음모』가 드러내는 정치적 함의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논했다. 미국의 민주주의 비판을 통해 형성된 작품의 급진적 정치성은 남근적 아버지에 대한 선망이라는 다분히 보수적인 서사로 수렴되며, 이 과정에서 전자가 지적한 민주주의 실천방식의 구조적 모순점들은 강한 남성성의 회복 문제에 의해 가려지고 약화되며 결국 해체된다. 가부장적 남성성의 회복이 작품의 최종적인 결말로 제

7) 결말에서 공동체적 연대의 모습이 그나마 약간 드러나는 부분은 아마도 셸든이 허먼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작품 초반 허먼이 상징했던 미국과의 합일의 가능성이나 혹은 워싱턴에서 가이드와 보여준 형제에 등에 비교하자면, 셸든의 구원은 같은 유대인끼리의 결합이자 거의 아들과 다름없이 로스 가족이 이미 돌보아왔던 아이라는 점에서 너무도 지엽적이고도 개인적인, 따라서 미국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종류의 연대라 할 수 있다.

시됨에 따라, 『미국 전복의 음모』가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상당히 자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작품의 자기모순은 공적 역사와 사적 역사가 가지는 관계성에서 발생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미국 전복의 음모』는 국가적 역사가 곧 개인적 역사의 시발점이며 따라서 전자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는 개인의 책임의식의 결여임을 작품 중후반까지 일관되게 서술한다. 그러나 작품의 이러한 태도는 결말에 이르러 완전히 전복된다. 가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능력이 회복되고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이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혹은 미국성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공적 역사와 완전히 단절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적 역사의 분리가 야기하는 문제는 분명해 보인다. 이는 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주적 주체성에 대한 근대적 환상의 발현인 동시에, 공적 역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전해지는 일종의 탈역사적 태도를 재생산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적 역사의 분리는 사회문제를 개인적 층위의 문제로 탈각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적어도 효과 면에서는)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사회에 내재된 반민주주의적 요소들’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 작품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일종의 각자도생의 사회, 다시 말해 반민주주의적 혹은 비인간적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개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구원의 여부가 전적으로 달려있는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결국, 사회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주체가 가능하다는 환상과 더불어 폭력이 곧 해방의 기제로 작동한다는 다분히 남성중심적인 관점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미국 전복의 음모』는 반민주주의적 미국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남성 주체 형성이라는 개인주의적 서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배경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Works Cited

- 박진빈. 『도시로 보는 미국사 - 아메리칸 시티, 혁신과 투쟁의 연대기』. 서울: 책세상, 2016.
- 윤수진. 「필립 로스의 『미국을 향한 음모』: 역사에 대한 ‘정당한 공포’와 책임」. 『미국학』 33.1 (2010): 197-231.
- Brown, Wendy. "We Are All Democrats Now..." *Theory & Event* 13.2 (2010).
- Bucktin, Christopher. "Why is Donald Trump so popular? 5 reasons for his surge to Presidential front runner" *The Mirror*. 4 May 2016. <<http://www.mirror.co.uk/news/world-news/donald-trump-popular-5-reasons-7898905>> Retrieved on 15 Jan. 2017.
- Coetzee, J.M. "Philip Roth, *The Plot Against America*." *Inner Workings: Literary Essays 2000-2005*. London: Penguin, 2007. 228-43.
- Hutcheon, Linda.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London: Routledge, 1989.
- Kaminski, Matthew. "This Political Spectacle." *The Politico*. 11 Jun. 2016. <<http://www.politico.eu/article/this-political-spectacle-extremism-us-shakespeare-clinton>> Retrieved on 29 Jan. 2017.
- Kaplan, Brett Ashley. "Just Folks Homesteading: Roth's Doubled Plots Against America." *Philip Roth: American Pastoral, The Human Stain, The Plot Against America*. Ed. Debra Shostak.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11. 115-29.
- Mouk, Yascha. "The Week Democracy Died." *Slate*, 14 Aug, 2016. <[http://www.slate.com/articles/news\\_and\\_politics/cover\\_story/2016/08/the\\_week\\_democracy\\_died\\_how\\_brexit\\_nice\\_turkey\\_and\\_trump\\_are\\_all\\_connected.html](http://www.slate.com/articles/news_and_politics/cover_story/2016/08/the_week_democracy_died_how_brexit_nice_turkey_and_trump_are_all_connected.html)> Retrieved on 15 Jan. 2017.
- Roth, Philip. *The Plot against America*.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2004.
- . "The Story Behind 'The Plot Against America.'" *New York Times*. 14 Sep. 2004. <<http://www.nytimes.com/2004/09/19/books/review/19ROTHL.html>> Retrieved on 02 Jan. 2017.
- Rothermel, Jonathan. "We are All to Blame for Trump." *U.S. News*. 18 Feb. 2016. <<http://www.usnews.com/opinion/articles/2016-02-18/we-all-helped>>



- donald-trump-rise> Retrieved on 15 Jan. 2017.
- Safer, Elaine B. *Mocking the Age: The Later Novels of Philip Roth*. Albany: SUNY P, 2006.
- Theroux, Paul. “Why is Trump so popular? Visiting the south gave one writer some clues” *The Guardian*. 24 Mar. 2016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6/mar/24/donald-trump-popularity-deep-south-paul-theroux-book>> Retrieved on 15 Jan. 2017.
- Waugh, Patricia. *Metafic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conscious Fiction*. London: Routledge, 1984.
- Weber, Myles. “Whose War Is This?” *New England Review* 27.4 (2006): 206-11.

- 논문 투고일자: 2017. 05. 30
- 심사 완료일자: 2017. 06. 22
- 게재 확정일자: 2017. 06. 26

**Abstract**

**The Uncomfortable Relation between Masculinity  
and Democracy in *The Plot against America***

Jieun Kw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two fundamental yet mutually contrasting elements of politics in Philip Roth's *The Plot against America*: the necessity to rejuvenate American democracy and the desire to reinstate masculine individuality. By adopting historiographic narrativity, Roth shows how 'Americanness' has degraded into an empty category 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The problem is, however, that Roth's political critique quite dismantles toward the end of the novel. The masculine patriarchal individual, which the author provides as an imaginary solution, tries to protect his family from the ruins of America, but in doing so, the text's focus shifts from the nation's communal identity to personal survival. This paper argues that *The Plot against America* suffers from this deviation, in which the author's overall attempt to radically re-imagine the nation's collectivity is severely crippled by his desire to revive a form of masculine heroism based on physical violence.

**Key Words**

Americanness, politics of spectacle, empty signifier, patriarchal masculinity, masculine violence